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예수 부활 대축일 교구장 메시지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참으로 어리석은 어떤 사람이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이 트기 전에 마을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해야, 오늘은 떠오를 생각일랑 하지 마라. 지평선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하늘의 구름이 붉게 타오르면서 사방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자연은 깨어 생명으로 돌아왔고, 새들은 새날을 맞으며 여기저기에서 지저귀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실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문과 창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햇살이 들어오는 구멍은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 주저앉아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캄캄하다. 완전히 캄캄하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태양은 오늘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태양을 이겼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돌로 막고 군인들에게 엄하게 지키도록 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을 막지 못했듯이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밖에 있는 어떤 이의 힘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그분의 힘으로 일어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

도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죽음의 세력들에 의해 오늘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온갖 어둠을 몰아내시고 죽음을 이긴 구원과 사랑의 승리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육중한 돌들을 밀쳐내셨듯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여셨습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게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져버린 듯했던 처참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그곳에서 찬란한 광채의 부활한 생명이 움터 나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주님 부활의 힘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님 부활의 힘에 대해 하시는 다음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스며든 생명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또다시 곳곳에 부활의 싹이 돋아납니다. 이는 막을 수 없는 힘입니다. 가끔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고질적인 불의와 사악함과 무관심과 잔인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어떤 것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폐허가 되어 버린 땅 위에 끈질기고도 강인한 생명이 솟아납니다.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선이 다시 꽃피고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날마다 아름다움이 새로 생겨나고 역사의 풍파를 거치며 변모됩니다. 가치들은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인간은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늘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힘이고 모든 복음 선포자는 그 힘의 도구입니다.”(「복음의 기쁨」 276항)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떠오르는 해가 집안을 비추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렸듯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함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

리자’는 제안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아십니다. 오늘날 흔히 사람은 내면에 있는 것, 자기 정신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삶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1978. 10. 22,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즉위식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지만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3년 전 오늘, 침몰하는 세월호와 함께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죄 없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슬픔과 고통을 잊지 못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말로 가슴 아픈 재앙입니다. 그 책임에서도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분명하게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죽음의 문화와 세력이 함께 타협하고 공모하는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메시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부활의 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삶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선포자가 되어 부활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요한 11.25)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2017년 4월 16일 예수 부활 대축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빛이 어둠을 이긴 밤

오늘 밤, 우리는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듣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과 친교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이 종살이 하던 삶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또 예언자들을 통해 죄악의 고통을 겪는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을 약속 해주십니다. 이 구원을 당신 아드님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세례를 통해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 밤은 세례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풍성한 은총을 이야기해주는 밤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을 세속 온갖 죄악과 죄의 어둠에서 구원하여,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밤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당신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예수님의 부활이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이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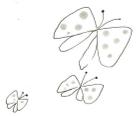
부활 사건은 안식일이 지난 주간 첫날 새벽에 일어납니다. 창조의 첫 날, 빛이 이 세상에 생겨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을 이기고 나타난 빛의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어둠을 상징하는 무덤이 비어있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마태 28,10)

우리가 사순시기 동안 성찰하고, 고해한 모든 죄들은 ‘무덤’이라는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아놓아 빛이 들어오지 못해 아무것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부주의함 이라는 어둠이 우리를 항상 갇갇하게 하는 곳입니

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 어떠한 기쁨도 보람도 희망도 나눔도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시체가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나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버려지고 방치된 곳입니다. 이러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고, 라자로를 무덤 밖으로, 생명의 터로 다시 불러내시는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무덤 밖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갈릴래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움과 삭막함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삶의 터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공동체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사순을 통해 무덤을 바라보고, 우리의 나약함에 탄식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던 우리는 오늘 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무덤을 떠나 사람들에게 달려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춘양 본당 김요한 요한 신부



부활 성야 전례

- 주례자와 해설자는 미리 전례 안내를 읽고 준비한다.
- 교우들은 사용할 초를 미리 준비한다.
- 주례자가 전례를 시작할 때 불을 모두 끈다. (손전등 준비)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성야입니다. 어둠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날, 주님의 빛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느님께 기쁨의 찬미를 올립니다. 오늘날까지 인류를 빛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제 1부 : 빛의 예식 : 불 축복과 부활초 점화

빛의 예식 안내 :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이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없이 주례자는 화로가 준비된 곳으로 나와서, 불을 축복하는 기도를 바친다.>

불 축복 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 주셨으니, 새로 마련한 이 불을 +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이 부활의 축제를 지내며, 천상의 삶을 갈망하게 하시고, 마침내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불 축복 후 주례자는 먼저 부활초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부활초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치면(3번) 교우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한다. 두 번째 외침 후 교우들은 부활초에서 불을 받아 자기 초에 붙인다. 세 번째 외침 후 성당 안의 불을 모두 켜다.>

부활 찬송 : 매일미사 181쪽

제 2부 : 말씀의 전례(모두 앉고, 개인 초의 촛불을 끈다.)

말씀의 전례 안내 :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제 1 독서 : 창세기 1장 1절-2장 2절

안 내 :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만물은 태어나고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 온갖 만물에게 당신 말씀과 영을 넣어 주시어 각각에 맞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1독서 후 기도> : (모두 일어선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이 창조된 것은 참으로 오묘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더욱 오묘한 업적이옵니다. 저희가 모두 이 위대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 3 독서 : 탈출기 14장 15절-15장 1절

안 내 :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생략하고 바로 화답송을 한다.>

화답송 :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3독서 후 기도> : (모두 일어선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그 옛날 이집트에서 행하신 기적을 오늘도 이루시니, 주님의 전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박해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세례성사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어, 이스라엘의 특전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7 독서 : 에제키엘 36장 16절-17절, 18절-28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찢기고 더럽혀진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 주십니다.

묵 상 :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도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화답송 :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7독서 후 기도> : (모두 일어선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한 빛이신 하느님,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굽어 보시고, 영원으로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업적을 완성하소서. 또한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새로워지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 해짐을 온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구약의 마지막 독서와 화답송과 기도가 끝나면 부활초의 불을 제대초에 붙이고 대영광송을 시작한다.>

대영광송

본기도

† 기도합니다. 하느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교회 안에 새로 태어난 이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서 간 : 로마서 6장 3절-11절

안 내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묵 상 :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사실은 죄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복음 환호송 : 364번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8장 1절-10절

강 론 : '빛이 어둠을 이긴 밤'(4-5)

세례 서약 갱신 (교우들은 다시 촛불을 켜 든다.)

안 내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례 때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힘차게 서약합니다.

†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 시기를 마치며, 마귀와 그 행실을 끊어 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 아멘.

보편 지향 기도

예물준비성가 : 131번 ‘찬미 노래 드리자’

영성체성가 :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사실은
죄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침묵>

사랑을 찾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신 예수 그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갈릴래아에서 펼쳐질 하느님 나라는 또다른 시작이 되고
더 큰 사랑으로 인류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예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전례

입당 전 안내

알렐루야, 알렐루야.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부활대축일입니다. 전례주년의 절정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며 희망이 되는 이 축제일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죽음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하느님의 권능에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축제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본기도

†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10장 34절. 37절-43절

안 내 :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묵 상 : 인간의 생각과 하느님의 뜻은 다릅니다. 인간이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길 때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화답송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 2 독서 : 콜로새서 3장 1절-4절

안 내 :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묵 상 : 예수님께서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도 삶도, 새 생명도 모두 우리 인간을 위함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인간을 새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부 속 가 : 매일미사 217쪽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20장 1절-9절

강 론 : ‘부활 대축일 교구장 메시지(1-3)’

예물준비성가 : 135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영성체성가 : 165번 ‘주의 잔치’

영성체 후 묵상

가끔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을 못 알아 볼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면 나도 제자들처럼 유령이라고 놀라며 토마스처럼 확인하고 싶어 할까?’ 라고 말입니다.

<침묵>

어쩌면 저는 제자들보다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제, 오늘도 예수님은 제 곁을 스쳐 지나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 없어하는 노숙자나, 병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 연고도 없이 시설에 누워계신 고령의 어르신 모습으로 오시어 매순간 제 곁을 맴돌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공동체 안에서 축하의 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주일마다 드리는 미사에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참례를 의무적으로 하고서 정작 생활 안에서는 희생도 봉사도 나눔도 인색한 제 곁에 오시어 굳은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스런 생각이 듭니다.

<침묵>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오늘,

머리나 말로만이 아닌

진실로 이웃과 삶을 나누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만나 뵈는

기쁜 오늘이 되도록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2번 ‘감사의 송가를’



알 림

■ **우곡성지 미사 안내**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신설)

- 주일 오전 11시,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단,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오전 11시
- 순례단 요청시 상시 미사 가능
-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는 3월부터 봉헌합니다.
- 매월 넷째 주일은 우곡성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입니다.
- 개인, 단체 피정이나 미사 신청 문의는 상시 접수.
- 문의 : 054-673-4152 FAX 054-673-7094

■ **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4월 23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의성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4월 20일(목)까지

■ **우리농 목성동 장날**

‘입새달에 만난 맛난 봄나물장’

- 일시 : 4월 23일(주일), 4월 30일(주일) 10:30 - 15:30
- 장소 : 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앞
- 문의 : 054-856-0127(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 ※ “우리농 장날에 요리교실” 함께 진행
참가비 5,000원(재료비 포함) / 선착순 30명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4월 24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오순실 마리아(마산교구)

■ **교구 청년 단합대회**

- 일시 : 4월 30일(주일) 10:00 - 17: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안동교구 내 본당 청년, 대학생
- 회비 : 1인 10,000원

■ **2017년 교구 친교의 날 및 제26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 일시 : 5월 3일(수) 09:00 - 15:00
- 장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종목 : 테니스, 족구, 피구, 윗놀이, 지구별 줄다리기
- 참가자격 : 안동교구 내 가톨릭 신자 (단, 예비신자는 참가 불가)
- 주최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북부지구 지구사목협의회
- 참가신청 : 4월 20일(목)까지
하망동성당 (FAX 636-9103)
-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

■ **제2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20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23일(부활 제2주일) : 영덕 본당
- 4월 30일(부활 제3주일) : 서문동 본당 (견진성사)

■ **2017 수취페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5월 14일(주일) 19:00 공검성당